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한국男女 세계를 들어 올리다

〈안용권〉

안용권 '깜짝 金'·장미란 4연패 위업

세계 선수권 최중량급 첫 동반 우승

'불사조' 안용권(27·상무)과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6·고양시청)이 세계를 들어올렸다.

안용권이 2009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최중량급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란 타이틀을 얻었다. 장미란은 용상과 합계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세계선수권 대회 4회 연속 우승의 쾌거를 올렸다.

세계 역도 사상 한 국가가 '역도의 상징'인 남녀 최중량급에서 나란히 우승을 차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용권은 29일 고양시 킨텍스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남자 최중량급(+105kg)에서 인상 198kg, 용상 247kg을 들어올려 합계 445kg으로 우크라이나 아르템 우다친(29)과 동률을 이뤘지만 몸무게가 덜 나가 합계 우승을 차지했다. 안용권은 몸무게가 142.23kg, 우다친은 158.90kg이다.

안용권은 용상에서도 245kg을 기록한 우다친을 2kg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 1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안용권은 한국 남자 역도 사상 세계선수권대회 최중량급에서 처음으로 합계 금메달을 목에 건 주인공이 됐다.

세계대회에서 나온 한국의 최중량급 최고 성적은 1999년 아테네대회 때 김태현(39)이 획득한 용상 은메달이다.

한국 역도의 '히든카드'로 꼽힌 안용권의 합계 우승은 그야말로 극적이었다. 안용권은 인상부터 입상권에 들며 일찌감치 활약을 예고했다.

안용권은 인상 1차 시기에서 198kg을 들지 못했지만 2차 시기에서 재도전해 성공했다. 3차 시기에서 자신의 한국신기록인 206kg을 끝내 들지 못한 건 두고두고 아쉬웠다.

인상 198kg을 들어올린 안용권은 3위에 올라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최중량급 인상에서 메달을 따는데 만족했다.

용상에서 괴력이 발휘됐다. 안용권은 용상 1차 시기에서 233kg을 가볍게 들어올린 뒤 2차 시기에서도 240kg을 들어 일찌감치 용상 2위를 확보했다.

우다친도 만만치 않았다. 인상에서 2위를 차지한 우다친은 용상 3차 시기에서 245kg을 번쩍 들며 안용권을 따돌리고 잠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안용권은 용상 마지막 시기에서 우다친보다 2kg이 무거운 247kg을 신청했고 결국 어깨까지 들어올리는 클린 동작에 이어 바벨을 머리 위로 드는 저크 동작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굿 리프트' 사인을 받아냈다.

안용권은 합계에서 우다친과 동률을 이뤘지만 몸무게가 덜 나가는 선수에게 승리가 돌아가는 규정에 따라 우승을 차지했다.

안용권의 우승으로 한국은 남녀 최중량급을 동시에 석권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장미란은 28일 열린 여자 최중량급(+75kg) 경기 인상에서 136kg, 용상에서 세계신기록인 187kg을 들어올려 합계 323kg으로 용상과 합계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지난해 8월 베이징올림픽에서 자신이 작성한 용상 세계기록(186kg)을 1kg 더 늘리며 2005년부터 4회 연속(2005, 2006, 2007, 2009)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을 포함하면 5년 연속 최고 권위의 국제대회 우승이다.

한국 역도 사상 세계선수권대회를 네 차례나 석권한 선수는 장미란이 유일하다. 1987년부터 시작한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부에서 4연패를 이룬 선수는 중국의 리야쥐안(1990~1993년)과 탕웨이팡(1995~1998년) 두 명뿐이다. /연합뉴스

장미란 이젠 런던올림픽… 인상 주력 동계 지옥훈련

"인상 종목에서 기록을 더 늘려야 한다. 스파르타식 지옥 훈련을 할 계획이다."

김기웅 여자 역도 대표팀 감독이 장미란의 강도 높은 겨울 훈련을 예고했다.

김 감독은 28일 장미란이 2009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용상과 합계 우승을 확정하고 나서 "이번 동계 훈련 때는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장미란의 인상 기록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도 깔렸다. 장미란은 이번 대회 인상에서 136kg을 들어 138kg을 기록한 러시아 타티아나 카쉬리나에게 뒤져 2위로 밀려났다.

김 감독은 "치고 올라오는 다른 나라 선수들을 견제하려면 장미란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이번 동계 때는 강도 높은 지옥훈련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상에서 장미란이 또다시 2위에 그치면서 인상 기록 향상에 더욱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장미란의 이번 인상 기록은 작년 베이징올림픽 때 자신이 들었던 140kg보다 4kg 부족하다.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역도를 담당하는 문영진 박사 역시 장미란의 인상 동작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런던올림픽을 겨냥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박사는 "인상 동작에서 엉덩이가 많이 빠져 바벨을 들어올릴 때 억지 힘이 나오는데 그때 좌우 발런스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엉덩이를 앞쪽으로 치고 나오도록 하는 식으로 자세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장미란〉

우즈 교통사고 불륜 때문?

부인 엘린과 불화설 등 의문 증폭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우즈의 불륜설까지 겹치면서 이번 교통사고가 가정 불화와 관련이 있는지가 관심이다.

우즈가 교통사고를 낸 시간은 27일(현지시간) 오전 2시25분. 그는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 아일워스의 자택 앞 도로에서 자신의 캐딜락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소화전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미 언론들은 우즈의 사고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AP 통신은 도대체 그가 금요일 새벽 2시25분이라는 시간에 어디로 가려 했던 것인지, 우즈 측에서 왜 사고가 난 이후 13시간 가까이 아무런 언급도 없었는지 등이 의문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 우즈는 길바닥에 누워 있었고 부인 엘린이 옆에 있었다. 경찰서장인 데니얼 세일러는 엘린이 뒷 창을 골프채로 깨 우즈를 차에서 나오게 한 뒤 길에 눕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즈는 경찰이 왔을 때 의식이 없었다.

부인 엘린과 타이거 우즈.

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즈의 불륜에 따른 부인과의 불화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국 타블로이드 신문인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최근 "우즈가 뉴욕의 나이트클럽 호스티스인 레이첼 우치텔이라는 여성을 만나 왔고 최근에는 호주 멜버른 등에서 시간을 함께 보냈다"며 불륜설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사고 전 우즈가 불륜 문제로 부인과 다퉜다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고, 입술이 찢어진 우즈의 상처 등이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부인과 다툰 데 따른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우즈가 부인과 다퉜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TMZ닷컴은 우즈가 사고 당일 경찰과 나눈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불륜설 문제로 부인과 다퉜고 그 과정에서 부인이 우즈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TMZ닷컴은 또 우즈가 밖으로 나가자 부인이 골프채를 들고 쫓아왔고 차를 골프채로 몇 차례 내리쳤다며 이 과정에서 우즈가 사고를 냈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우즈로부터 27일 저녁에 진술을 들으려 했으나 그의 부인이 남편이 자고 있다고 해 발길을 돌렸고, 28일 다시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월드컵 골프 한국 '톱10'

양용은과 위창수(이상 37·테일러메이드)가 짝을 이룬 한국골프대표팀이 제55회 미션힐스 월드컵골프대회에서 5년만에 톱10에 진입하는 성적을 남겼다.

한국은 29일 중국 선전의 미션힐스 골프장 올라사발 코스(파72.7천320야드)에서 두 선수가 한개의 공을 번갈아 치는 포섬방식으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버디 6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4언더파 68타를 적어냈다.

4라운드 합계 20언더파 268타를 친 한국은 미국,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일스와 함께 공동 7위로 대회를 마쳤다.

형제인 에도아르도와 프란체스코 몰리나리가 힘을 합한 이탈리아는 29언더파 259타로 이 대회에서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난 해 우승팀 스웨덴은 1타 모자란 28언더파 260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한국은 2002년 대회에서 최경주(39·나이키골프)와 허석호(36)가 공동 3위에 오르는 최고의 성적을 냈고 2004년까지 3년 연속 톱10에 들었지만 이후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다. /연합뉴스

KIA 한국시리즈 우승효과

2,000억원 넘는다

12년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우승 효과가 무려 2천억원을 상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는 29일 KIA가 한국시리즈를 통해 거둔 경제적 효과가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연구돼 프로스포츠 이벤트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고 밝혔다.

체육공단이 경희대 스포츠산업경영연구소 김도균 교수에 의뢰해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KIA는 우승에 따른 입장수입과 미디어를 통한 스폰서 노출 등의 직접효과와 구단, 모기업 및 스폰서 가치증대, 연고지역인 광주시의 경제 부흥 등 간접효과 등을 모두 합해 2천22억1천933만원의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직접효과는 ▲미디어 직접노출 85억원 ▲스폰서 노출 520억원 ▲우승에 따른 직접 수입 48억원 ▲ KIA 브랜드 노출 효과 168억원 등이다.

간접효과는 ▲구단의 가치 증대 88억원 ▲모기업 가치 증대 25억원 ▲스폰서 가치증대 845억원 등이며 부가효과는 ▲돔구장 건설 비용 100억원 ▲KIA자동차 임직원 애사심과 자긍심 고취 38억원 등이 조사됐다.

체육공단은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가 국가브랜드 향상과 국내경제 활성화 등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